



주간통일정세 2007-14(2007.12.10~12.1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7-1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경제 관련

●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적 대책 강화(12/13, 조선신보)

- 북한은 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부, 무역회사, 수출품 생산기업들의 공동의 구호로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 실현”을 내세우고 있음
-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 실현”은 “국제시장에서는 공급이 적은 상품들을 위주로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 수출하는 것”과 “나라의 가공능력을 높여 원자재의 수출을 점차 가공품의 수출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국제 연계 금융발전 강조(12/11, 조선신보)

- “조선 정부가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원칙에 기초해 금융분야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다른 나라 은행들과 국제금융기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경제무역 과정에 동반되는 자금결제를 비롯한 금융활동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자는 것”이 ‘조선무역은행’의 기본입장임을 강조

나.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지휘부 시찰(12/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이 북한 인민군 제255군부대 지휘부를 시찰(12/14)한 것으로 보도됨.
- 군인회관과 도서실 등 부대 내 문화교양 시설을 시찰하고 “사상 교양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군인들을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
- 위원장의 시찰 수행자는 인민군 현철해, 리명수 대장 등임

다. 정치관련

● 자주적 관점에서의 인권 강조(12/10, 평양방송)

- 세계 인권선언 59주년 기념일에 “인권은 곧 주권이며 주권이 없는 인민에게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자주적 관점에서 인권을 강조
-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침예한 정세는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군의 길로 드팀없이 나가도록 떠밀어 주고 있다”고 하면서 자주성을 강조하고, “우리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누리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법적으로 담보 받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차별 없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 뿐 아니라. 사회적 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

라. 사회 관련

● 김정숙 ‘모성 영웅’ 강조(12/1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1917~1949)의 90회 생일(12.24)을 앞두고 김정숙 ‘모성(母性) 영웅’ 상을 부각시키고 있음

마. 기타

● 北,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12/13, 조선중앙통신)

-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도
- 여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에이즈기구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에이즈 예방통제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
- 동 행사에는 테즈 왈리아 WHO 평양대표와 앤터니 베이츠 유엔 에이즈 아태지역 기술고문,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와 외교관계 정상화 의지 강조(12/15, 연합)

- 11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 관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미국을 철전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미국과 우호적 관계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음
- 당시 세미나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됐으며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이 참석.

● 부시 친서에 대한 북한의 구두 답신 전달(12/14, 연합)

- 북한은 최근 뉴욕 채널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미국도 해야 할 바를 다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구두 답신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나. 북·일 관계

- **북한, 일본의 MD를 대북 선제공격용으로 비난 (12/10, 노동신문)**
 - ‘선제공격을 노린 무모한 미사일방위체계 수립 책동’이라는 노동신문의 논평에서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은 냉전 후 일본이 무력증강에서 특별히 중시하며 힘을 넣고 있는 부문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미국과의 미사일방위체계 공동개발로부터 발걸음을 떼는 것은 전쟁 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법적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저들이 목적인 대로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는 데 있다”고 비난

다. 북·중 관계

- **북중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합의(12/14, 조선중앙TV)**
 - 북한과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를 내년 4월26일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
 - 평양 성화봉송 행사는 주체사상탑에서 출발해 5.1 경기장-김일성종합대학-조중우의탑-중국대사관-4.25문화회관-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보통문-인민문화궁전-평양체육관-김일성광장-천리마동상-개선문-김일성체육관에 이르는 20km 구간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 **북중 과학협력협정 체결(12/13, 연합; 중국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은 과학 및 기술 협력이행 협정을 체결(12/13)
 - 13일 평양에서 중국 과학기술부와 북한 국가과학원이 협정 서명식을 거행했으며 이에 따라 북중 양국은 농업과 전력발전, 소프트웨어 개발, 의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 약속
- **중국의 2007년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 감소(12/12, 연합)**
 -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제한 정책에 따라 올해 중국의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 1~11월 린장(臨江)과 지안(集安) 등 지린(吉林)성 통화(通化)지구의 각 세관을 통해 수입된 북한산 무연탄과 광석 등 광물자원은 총 1만7천150t, 104만1천달러 어치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6.7%와 4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국중소기업망(中國中小企業網)망이 12일 보도

라. 북·러 관계

- **북한의 러시아제 새 민항기 도입 계획 (12/12, 연합)**
 - 북한이 러시아에서 새 민항기를 도입할 계획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투볼레프(TU)-204 여객기 1대가 이달 중순께 북한의 고려항공에 인도될 것”이며 “새 비행기는 평양-베이징(北京) 또는 평양-



선양(瀋陽) 노선에 투입돼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마. 기타 외교 관계

● 북·이란 체육협조 양해문 체결(1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이란은 평양에서 체육분야협조 양해문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됨
- 북측에서 문재덕 체육지도위원장, 이란 측에서 방북 중인 이란 체육 교육위원회 대표단장인 모하메드 알리아바디 이란 부통령이 각각 양해문에 서명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北 방송,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보도(12/1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KBS 방송'을 인용해 “7일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항해 중이던 유조선과 기중기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짚막하게 보도

나. 남북교류

● 개성공단 방문행사 17일 중단 (12/15, 연합)

- 개성공단 방문행사가 17일부터 중단돼 내년 1월 25일 재개
- 통일부는 15일 북측이 지난달 초 남측에 통보한 대로 개성공단 방문행사가 이달 17일부터 중단되지만 사업 관계자들의 방문은 정상시대로 이뤄진다고 발표

● 조선협력 현지조사단 2차 방북(12/14, 연합)

- 산업자원부는 14일 북한 내 조선협력단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현지 조사단이 15~18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힘.
- 방북 조사단은 최평락 산자부 기간제조산업 본부장을 단장으로 산자부, 통일부 등 정부부처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 및 조선 기자재 11개 업체, 조선협회 관계자, 전력 수급문제를 검토할 한국전력 관계자 등 모두 37명으로 구성

● 북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 광물로 첫 상환(12/14, 연합)

- 북한이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한 상환을 시작, 북측이 그동안 남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쌀, 자재 등 각종 차관 가운데 상환을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남북, '3통' 군사보장합의서 타결(12/12, 연합)**
 - 2008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통신이 가능해짐.
 - 남북은 12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관.통신)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를 채택

-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차 현지조사 실시(!2/12, 연합)**
 - 남북은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 철도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작업을 위해 12일부터 7일간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일부가 밝힘.
 - 우리 측 현지조사단은 통일부 김기혁 남북기반협력팀장(총괄)과 건설교통부 김경중 남북교통팀장(조사)을 단장으로 통일부와 건교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5명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 **남북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 판문점서 개최(12/12, 연합)**
 - 남북은 12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과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를 협의
 - 14일까지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회담에는 이흥기(육군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영철 인민군 중장(남측 소장급)을 양측 수석대표로 4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

- **개성공단 화물열차 운행 시작(12/11, 연합)**
 -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지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나르는 경의선 열차가 11일 운행을 시작
 - 한국전쟁으로 1951년 6월12일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여 만에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되는 것으로, 지난 5월 시험 운행을 실시한 지 7개월 만임.

- **도라산 남북물류센터 준공(12/10, 연합)**
 - 남북 간 경의선 화물열차의 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도라산 물류센터가 10일 준공
 - 물류센터 준공에 따라 그동안 여객 터미널에서 처리하던 인원, 차량, 화물 출입경 업무가 물류센터로 분산돼 도라산 출입사무소의 하루 통행 인원은 1만2천명에서 2만3천명으로, 차량은 2천500대에서 7천600대로 각각 늘어나게 되며, 도라산 물류센터는 창고, 동물검역 및 계류장, 철도차량검수시설 등 22개동으로 구성돼 화물통관, 식물검역, 동물계류.검역, 철도차량 정비 및 검수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비공식 회의 개최(12/12)

-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비공식 수석대표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제공기로 한 에너지 지원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음.
- 이번 회의는 제3차 실무그룹회의(10/29~30)의 후속조치로서 북한의 핵신고·불능화 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의 하나인 중유 50만t 상당의 에너지 관련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했음.

나. 미·북 관계

● 부시, 북한 인권탄압 국가로 지목(12/10)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짐바브웨, 수단과 함께 여전히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로 지목했음.

● 뉴욕필, 평양공연 확정 발표(12/11)

- 미국의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뉴욕 맨해튼 링컨센터에서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및 한국 공연 일정을 공개하면서 내년 2월 26일 평양에서 공연을 갖는다고 공식발표했음.
- 곤잘로 길예고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은 10·3 합의에서 양측 간의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며 “우리는 북·미간의 문화교류를 계속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음(12/10).
-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은 북한이 그동안 꼭꼭 숨어있던 껍질로부터 벗어나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12/10)했음.

● 미 상원, 북 테러지원국 해제 제동 결의안 제출(12/11)

- 샘 브라운백 등 미국 상원의원 4명은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전제조건을 명시한 상원 결의안(SR399)을 의회에 제출했음.
- 이들은 기준으로 ①북한이 미사일·핵·생화학 기술을 외국, 특히 이란·시리아 등에 불법 이전하는데 더 이상 연루돼 있지 않다는 것, ②국제테러 조직을 훈련시키거나 보호하거나 재정지원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개입돼 있지 않은 것, ③미 달러화를 위조하지 않는 것,



④김정일 위원장이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것, ⑤김동식 목사 등 한국인 납북자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⑥생존이 예상되는 한국전 전쟁포로 600여 명에 대한 행방 확인, ⑦테러활동 중단 등을 제시했음.

● 라이스, “북과 폭넓은 관계개선 준비 안돼”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AP통신과 가진 기자회견(12/12)에서 최근 북한과 관계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과 폭넓은 관계개선을 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며 북한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핵확산 우려가 있는 국가라고 밝혔음.
- 미국 정부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 정부와 폭넓은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미 의회보고서, “북한, 헤즈볼라, 타밀 반군에 무기 지원”(12/12)

-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 국무부가 북한이 지난 1987년 이후 테러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테러단체인 레바논 헤즈볼라나 스리랑카 타밀엘랑해방호랑이 반군의 활동을 지원해왔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음.
- CRS 래리 닉시 연구원 등은 이날 업데이트해 발표한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과 프랑스, 일본 등의 언론 보도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을 선불리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요미우리」, “북, 핵계획 신고 거부”

-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상원 외교위원회 비밀 청문회(12/12)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향한 ‘제2단계 조치’ 가운데 핵시설의 불능화는 진전되고 있으나 핵계획의 신고에 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①핵관련 물질·시설 계획, ②우라늄 농축활동, ③핵기술 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북한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12/13)했음.
- 힐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폭탄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의 ‘용도 명시’를 거부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이전도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과거 활동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신문은 밝혔음.
-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는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북한이 비핵화에 협력하는 ‘정치적 조건’이 있음을 강조, 북한에 의한 완전 신고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 **미 상원, 북핵폐기 비용 포함 국방예산법안 처리(12/14)**
 -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북한 핵폐기 예산을 비롯해 총 6천960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내역을 담은 2008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법안을 처리했음.
 - 법안은 비핵화 국제안보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3천970만 달러를 책정하고, 올해보다 증액한 1천3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해 핵폐기와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했음.

- **부시, 북 철저한 핵신고 거듭 촉구(12/14)**
 -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확실한 지향점을 제시했다며 북한은 “핵프로그램은 물론 무기 제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핵물질들과 일체의 확산 활동을 완전히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백악관, 북한의 부시 친서 구두답신 확인(12/14)**
 -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구두 답신을 뉴욕 채널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음.
 -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미국도 해야 할 바를 다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구두답신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음(12/14).

- **WP, “북 핵시설 불능화 중대진전 불구 신고 지연”(12/15)**
 - 「워싱턴 포스트」(WP)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프로그램의 수준에 대한 핵심적인 세부내용 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미 정부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와 핵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신고를 마감시간인 올해 말까지 끝내지 못하고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 미국은 북한의 과거 핵확산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얻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핵기술을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행적에 대해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무기화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북한은 플루토늄의 생산량만 언급하고 싶어함.
 - 미국은 북한의 핵관련 시설에 대한 모든 목록을 얻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지 않은 불안정한 목록을 주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우라늄농축장비 구매 이유를 밝히기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



● **북한 당국자, “김정일,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 안 해”**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북·미 금융실무회의(11/19~20)에 앞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11/16)에 참석한 북한 관리가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음(12/15).
- 당시 세미나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개최됐으며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음.
- 이 세미나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세미나에 참석했던 북한 관리의 자국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북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음.
- 이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북한을 영원한 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음.

다. 중·북 관계

● **중 외교부, 우다웨이 방북 발표(12/11)**

- 중국 외교부는 북핵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갖고 6자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말했음.
- 이에 따라 우 부부장은 북한이 연말까지로 약속한 핵프로그램의 세부내역 신고를 촉구하고 핵 신고목록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 올해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 감소**

- 중국 「해관총서」통계에 따르면 올 1~11월 지린성 통화지구의 각 세관을 통해 수입된 북한산 무연탄과 광석 등 광물자원은 총 1만7천 150t, 104만1천 달러 어치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6.7%와 4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중소기업망」이 전했다(12/12).
- 특히 이 기간 북한산 무연탄 수입은 총 71만9천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기간에 비해 무려 47.9% 감소했음.
- 이 같은 수입 감소는 북한 당국이 올해 4월 김영일 총리의 취임 이후 기업으로부터 무연탄 수출허가권을 회수하고 원광석 형태의 광물자원 수출을 금지하는 대신 선광과 제련 등 2차 가공을 거친 광물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하고 있는 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주변국 관련

가. 일본 관계

● 일, 공중요격 미사일 첫 시험발사

- 일본은 미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공중 요격용 ‘스탠더드 미사일 3(SM-3)’의 시험 발사를 12월 제4주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일본 방위성 대변인이 밝혔음(12/14).
- 일본과 미국은 지난 98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상으로 떨어지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나. 러시아 관계

● 푸틴, 후계자 지명(12/10)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후계자로 드미트리 메드베제프(42세) 제1부총리를 지명하였음.
- 메드베제프가 후계자로 지목된 것은 푸틴 대통령과 같은 페테르부르크 출신이라는 점과 푸틴 대통령이 추진해온 최고 국정과제이자 민생과 관련된 보건, 교육, 주거, 농업 등 4가지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메드베제프 제1부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총리가 돼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총리직을 제안(12/11)했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